

해태그룹, 양돈에서 완전 손떼

—해태종돈장 종업원들에게 양도기로 결정

취재 : 김 동 성



▲ 종업원들에게 양돈장을 양도기로 한 해태 종돈장 전경

해태그룹이 양돈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전남 나주소재 해태 종돈장(해태제과 농축산사업부)을 종업원들에게 양도하는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

해태그룹은 지난 5월 재벌그룹이 1차산업인 양돈업에 참여했다는 부정적인 그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대기업의 양돈규모 감축시

책에 발맞추기 위해 양돈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태제과는 지난 5월 농축산사업부에 소속된 전남 나주시 반남면 청송리 소재 해태종돈장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양도조건은 그동안 자사 종돈장에 몸담고 열심히 일해준 댓가에 보답하고, 또 종업원들

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총 매각대금중 70%를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토록 하는 매우 좋은 조건으로 했다. 매각대금은 양돈장부지 27,000여평과 2,000여평의 돈사·설비 일체, 그리고 3,000여두의 종돈(자돈 등 총두수)을 모두 합해 14억5천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태측은 종업원들의 자금사

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중 4억5천만원만 계약시 받고 나머지 10억원은 1년거치 7년 분할조건으로 하여, 종돈장을 운영하면서 얻는 이익금으로 내도록 했다.

그러나 종업원들은 일시에 4억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당장 조달할 수 없어 외지인 2명에게 50%의 자금을 내도록 해 농장 직원과 외지인의 인수비율을 50 : 50으로 했다.

현재 해태종돈장에는 모두 7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4명이 종돈장 인수에 참여했고, 나머지 3명은 여건이 허락치 않아 양돈장 인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수에 참여하지 않은 종업원들은 모두 해태그룹으로 전보발령될 예정이다.

종업원들은 5월중에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후 6월 말에 잔금을 지급한후 종돈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종돈장 이름은 가칭 다산종축으로 정했다.

한편 해태제과는 지난 83년 육가공사업에 참여한다는 목표 아래 전남 나주에 17만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3만여두의 양돈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안 인근 중소규모 양돈농가들이 대기업이 1차산업인 양돈업에 참여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또 회사의 자금사정 등이 여의치 않아 육가공 공장설립 계



▲해태 종돈장 초창기부터 근무해 온 직원 4 명이 공동으로 농장을 인수키로 결정해 양돈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좌로부터 문일순씨, 박경환씨, 유재록씨, 전봉산씨)

획을 포기했다. 대신 해태측은 양돈농가들에게 우수종돈을 보급한다는 취지아래 83년에 1,000두 규모의 종돈사육을 시작, 현재 3,000여두의 종돈을 사육하고 있다.

해태종돈장은 83년 당시 평당 50만원의 건축비를 투입, 완전자동화 시설을 갖추었으며, 완벽한 폐수처리 시설도 갖추고 있다.

최근 자연농원, 상천농원 등 대규모 양돈장들이 양돈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해태측의 이같은 결정은 기업이미지 개선, 정부시책 호응이라는 명분을 깔고 있으나, 실은 날로 가속화 되고 있는 축산물 수입개방과 양돈장의 인력난, 높은 인건비 상승, 낮은 수익률 등으로 양돈산업 전망이

불투명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는 해태측이 육가공공장 설립계획을 포기하면서부터 양돈업을 하는 명분을 잃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태측이 양돈장을 처분하면서 외지인에게 팔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매우 좋은 조건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은 양돈업계에 새로운 선례를 남기는 동시에 환영할만 하고,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규모 양돈장들이 현재 축산법에 따라 사육두수를 감축하면서 남는 인력과 시설문제로 고민에 휩싸여 있는 실정인데, 이런 측면에서 해태의 이번 결정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줬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촬영)